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안)

의안 번호	189
----------	-----

발의년월일 : 2001년 7월 2일
발 의 자 : 신길철 의원의 5인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택가에 자동차 대기오염을 가져오고 가시권, 조망권을 침해하며, 또한 제방공사시 위험이 있어 생존권에 침해되거나 공사계획을 즉각 중지토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계획을 시행할 경우 우리 관내 안양천을 통과함으로써 4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한강대교가 통과하는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교통문제와 하루 수 십 만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택가(아파트)의 피해는 물론
- 나. 자동차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 기간중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고 높은 고속도로로 인해 가시권, 조망권 등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 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41만 명 영등포구민과 더불어 서울 서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

(영등포구 양평1동, 양평2동, 문래2동구간)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 교통의 원활과 남·북간선 축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연계체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강서구 염창동(염창IC)에서 강남구 일원동(수서IC)까지, 폭 4~6차로, 연장 34.8km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2조 600억 원을 투입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2001년 12월경 착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우리 관내 안양천을 통과함으로써 4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한강대교가 통과하는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교통문제와 하루 수 십 만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택가(아파트)의 피해는 물론

자동차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기간중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고 높은 고속도로로 인해 가시권, 조망권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41만 명 영등포구민과 더불어 서울 서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주민공청회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만든 기본계획에 안양천 좌안(양천구)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안양천 우안(영등포구)으로 변경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 당초의 원안대로 노선을 안양천 좌안(양천구)으로 환원해야 한다.
2. 안양천 둔치 상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및 편익시설 그리고 보도육교설치(3개소) 공사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3. 각종 시설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가의 소음, 대기, 분진 등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4. 특히, 영등포구 문래2동 지역은 인구 13,000명의 90여 %가 제방 옆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공원 하나 없는 취약지역으로 집단민원이 되고 있어 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강폭이 300M이므로 수리(水理, 水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양천 제방부에서 둔치상으로 노선을 조정해 주고, 주택가(아파트)단지에서 멀리 이격(離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제방에 Risk를 주어 붕괴위험이 있어 주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즉각 공사계획을 중지시켜야 한다.

2001.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의원일동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안)

의안 번호	190
----------	-----

발의년월일 : 2001년 7월 3일
발 의 자 : 유남열 의원의 5인

1. 주 문

- 철도청의 영등포민자역사 시설개량 및 증축계획중 영화관 신설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중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매연, 소음공해와 주변상권을 침해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공사계획을 즉각 중지토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며